

캠프 데이비드 선언: 미국의 외적 균형과 중국의 내적 균형 전략 경쟁의 결과*

주재우**

- | | |
|-------------------------------|--------------------------|
| I. 서론 | IV. 미국의 외적 균형 노력에 대한 중국의 |
| II. 중국의 군사적 부상과 역내 '힘'의 구조 변화 | 인식과 대응 |
| III. 미국의 외적 균형 강화 추동 요인 | V. 우리의 전략적 함의와 대응 방향 |

국문요약

2023년 8월 미국 캠프데이비드 정상회담은 한국, 미국, 일본 3국의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이로써 한미일 3국의 군사적 협력은 불가역적인 시대로 진입하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문에서는 한미일 3국의 군사 관계를 추동한 요인을 중국의 내적 균형 전략과 미국의 외적 균형 전략의 필요성에서 찾고 있다. 즉,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지정학적 전략 이익에 대한 미중 양국의 인식을 조명하면서 각자의 전략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전략 조정을 대내외적인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제1열도선을 경계로 하는 이들의 지정학적 전략구상에서 해답을 찾는 시도를 하고 있다. 미국은 소다자 차원에서 군

사·경제·외교의 협력체를 신설하면서 미국의 최전선 방어 지역인 제1열도선 내에서의 전략 이익 수호에 노력을 배가하고 있다. 역으로 중국은 최후 방어 지역인 제1열도선 내에서의 전략 이익 수호를 위한 군사적 노력을 증강하고 있다. 우리가 중국의 군사적 부상으로 양산되는 중국의 실질적인 군사적 위협을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대응하기가 역부족인 상황에서 본문은 미국의 소다자 협의체에 적극 참여할 것을 적극 제언한다.

주제어: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군사협력, 제1열도선, 미중경쟁, 소다자주의.

* 본 논문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건설적인 조언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자들에게 감사드린다.

** 경희대학교 교수

I. 서론

강한 경제력에 힘입어 군사적으로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 구상은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함께 본격 진행되었다. 트럼프 전임 행정부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이하 ‘인태전략’)이 2017년에 이런 구상의 일환으로 채택되었다. 그의 후임 행정부인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구체화하고 행동강령(action plan)을 이행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견제전략으로 인태전략과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4국 안보협의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등의 부속 전략을 출범과 함께 실천에 옮겼다.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구상은 다차원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역 차원에서 인도-태평양이라는 범(凡)태평양 지역이 있다. 차지역(sub-region)으로 한미일 3국이 속한 동북아시아 지역이다. 인태지역이 거시적인 차원에서 중국의 제반 도전 요인을 견제하는 목적을 가진 것이라면, 차지역에서는 중국의 직접적인 위협(immediate threat)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전략이 전개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차지역은 이른바 ‘제1열도선’이라는 미국의 대중국 최전선 방어선을 수호하는데 핵심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방어선 수호 전략에는 대만의 방어문제까지 포함되어 있다.

역으로 중국의 입장에서는 제1열도선은 중국이 자국의 연해 지역을 방어하는데 있어 최후의 방어 전선이다. 이 선에 대한 중국의 방어가 무너질 때 대만은 미국 및 동맹의 방어범위에 귀속된다. 이런 의미에서 중국은 제1열도선의 방어에 사명감을 가지고 임하고 있다. 중국이 해군력 증강을 1990년대에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연근해 방어능력을 증대하기 위함이 그 이유다. 이제는 태평양, 특히 남태평양까지 방어능력을 확대하려는 군사적, 외교적 노력을 전개 중이다. 다시 말해, 중국은 제2열도선과 제3열도선까지 자국의 방어능력을 확대한다는 의미다. 제3열도선은 미국의 태평양의 최후 방어선이다.

미국은 중국의 태평양에 대한 군사적 전략구상을 견제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중국을 배제하는 첨단과학기술의 공급망을 재편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군사적으로 동맹과 우방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중국의 태평양에 대한 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저지하는데 군사외교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의 동

맹 강화 노력은 소다자주의 형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소다자 형식의 군사적 방어 연대의 조직을 의미한다. 쿼드가 대표적인 사례이고, 한미일 3국의 군사 관계 강화 역시 또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이 소다자 협의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제공할 수 있는 공공재의 부족 때문이다. 냉전 시기에 미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2% 이상을 차지했다. 막강한 경제력을 가진 미국은 냉전 당시 동맹에게 대량의 공공재를 제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의 미국은 그런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소다자 형태의 협력기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으로 미국은 다차원적으로 소다자 협의체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된 것이다. 동맹 중심의 소다자 협의체는 재정, 경제, 군사적인 방면에서 미국의 부담을 감소시켜주는 효과도 있다. 자유 국제 질서와 인류 보편적 가치 수호라는 정치적 명분이 미국의 동맹과 우방의 자발적 참여를 성공적으로 유발한 결과다.

미국이 중국 견제전략을 동맹 중심의 소다자 협의체를 이용하는 이유는 또 있다. 중국의 부상을 세력균형을 통해 ‘평화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데 있다. 강압적인 물리적 방식, 즉 봉쇄, 금수 조치, 전쟁 등의 수단 이외에 전략적으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중국도 자국의 ‘핵심 이익’에 대한 미국의 경계와 견제를 ‘평화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세력균형에 아직은 의존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미중 양국의 세력균형 전략은 다르다. 중국은 내적 균형(internal balancing)을 통해 국력을 경쟁국(미국)의 국력과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동질화하는 전략을 추구하는 중이다. 이 과정에서 군사안보 방면에서 중국은 군사력을 주변국(미국)에 준하는 수준까지 증진하려는 노력을 부단히 한다. 반면, 미국은 동북아시아와 중국과 지리적으로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불리한 상황(handicap)에서 가용 물적, 군사적 자원의 동원 한계도 가지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 미국은 주변국과의 연대를 통해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외적 균형(external balancing)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다.¹ 경제안보에서도 상황은 같다. 가령, 메모리 반도체의 원천기술을 미국이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생산하는 나라는 한국인데

¹ T.V. Paul, “The Enduring Axioms of Balance of Power Theory and Their Contemporary Relevance,” in T.V. Paul, James J. Writz, and Michel Fortman (eds.), *Balance of Power: Theory and Practice in the 21st Century*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4), pp. 4~5.

이에 필요한 소재, 부품, 장비를 한국이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에서 미국이 일본, 한국, 대만(파운드리) 등과 이른바 ‘칩포(Chip 4)’와 같이 소다자 연대의 조직을 주도한 이유를 볼 수 있다.

여기서 한국과 일본과 같이 중국에 상대적으로 열세인 나라들은 생존을 위해 강대국에 편승하는 전략을 선택한다.² 특히 중국으로부터 군사적 위협과 위압을 인식할 경우 위협을 균형하기 위한 전략적 시도로 균형 또는 편승하게 된다는 의미다. 다시 말해, 미국과 가치를 공유하고 동맹관계를 가진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위협 부재에 통감하고,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미국에 편승함으로써 경제적, 안보적 이익을 모두 취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이 국익에 부합하다는 것이다.³

미국과 중국이 각각 내적과 외적 균형을 추구하면서 서로를 견제하는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다. 미국이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반면, 중국은 자신의 국력 증강에 전념한다. 냉전시기 한반도 지역의 세력균형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 그리고 북중동맹 등 동맹 구조에 의존하며 세력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의 국력 신장과 북한의 국력 쇠퇴로 1970년대부터 세력균형은 한미일 3국에 유리하게 기울었다. 북중동맹이 열세의 위치에 놓은 가운데 중국이 개혁개방정책을 채택하고, 북한은 1980년대부터 핵무기 개발에 전념한다. 이후 중국의 고속성장에 힘입어 군사력도 급속도로 증강했고, 북한은 21세기에 실질적인 핵보유국이 되었다.

21세기에 들어와서 한반도 지역의 세력균형은 미국과 동맹에게 불리한 구조로 전환되기 시작한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전략적 선택은 동맹과 동맹 간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었다. 이는 미국의 동맹국들이 서로 동맹이 되는 관계로 의 전환을 의미하지 않지만, 협력관계의 강화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바 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인태전략부터 쿼드, 오키스(AUKUS),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와 한미일 3국 군사관계까지, 다양한 소다자 협의체의 발족이 이를 증명한다.

본문에서는 미국이 한미일 3국의 군사 관계 강화를 추동한 요인을 중국의 군사적 부상으로 역내 군사적 ‘힘(power)’의 구조의 변화를 제2장에서 우선 조망할 것이다. 제3장에서는 미국이 중국의 ‘힘’의 증강 노력, 즉 내적 균형의 의도와 목적

² Stephen M. Walt, *The Origins of Alliances*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1987).

³ Randall L. Schweller, “Bandwagoning for Profit: Bringing the Revisionist State Back In,” *International Security*, vol. 19, no.1 (1994), pp. 72~107.

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규명함으로써 외적 균형을 강화해야하는 이유를 분석할 것이다. 제4장은 미국의 외적 균형 전략의 강화 노력을 중국이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하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제5장에서는 이 같은 미중 견제 전략이 우리에게 주는 전략적 함의를 소개하며 우리의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을 것이다.

II. 중국의 군사적 부상과 역내 ‘힘’의 구조 변화

중국은 1949년 공산국가를 세운 이후 미국을 적대하는 정책으로 일관했다. 냉전이라는 특수한 시기에 공산당 정권이 출범하면서 자명한 결과였다. 이후 이듬해 중국은 소련과 우호 협력 조약을 체결하면서 동맹 관계를 맺는다. 6.25 전쟁을 겪으면서 미국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은 한 층 더 강화되었다. 전쟁 내내, 그리고 정전 이후에도 미국의 핵위협에서 자유롭지 않았기 때문이다.

6.25 전쟁 발발 이후 중국은 끊임없이 미국의 핵위협을 받았다.⁴ 중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 미국의 핵위협을 많이 받은 나라로 역사에 기록되었다. 북베트남, 소련, 심지어 북한보다도 미국의 핵위협을 더 일찍이, 더 빈번하게 받은 나라가 중국이다. 중국은 한국전쟁 당시 공식적으로 두 번(1950년과 1953년), 1차 대만해협 위기사태 때도 최소한 두 번(1954년과 1955년—후자의 경우 두 차례 있었음), 그리고 1958년의 2차 대만해협 위기사태 때도 미국의 핵폭격 협박을 받았다.

특히 한국전쟁 당시에는 1950년 말에 처음으로 핵사용 가능성을 공개화하면서부터 정전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미국의 공개적인 협박이 노골화되었다. 핵위협 발언의 수위와 심각성을 보면 1950년 중국군의 참전 직후와 1953년 정전협정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취했던 미국의 핵위협 발언은 중국 내에 강한 위기감을 가져다주었다.⁵

중국은 특히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술핵무기 배치와 핵우산 체계로부터

⁴ 마오쩌둥은 미국의 핵 위협을 ‘핵 협박(nuclear blackmail)’으로 인식했다. 이런 핵 협박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강대국의 핵 독점력(nuclear monopoly)을 타파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기 시작했다.

⁵ 특히 1953년 2월 11일 미 국가안보회의 발언은 중국에게 치명적으로 들렸다. 張振江·王深, “美國和中國核爆炸,” 『當代中國史研究』, 3期 (1999), p. 25.

극심한 위협감을 느꼈다. 반공주의에 입각한 군사적 포위망이 미국의 역내 국가와 의 일련의 군사동맹조약으로 현실화하였다. 이후 미국은 1954년 12월 오키나와에 핵무기를 배치했고, 1958년에는 주한미군에, 1960년 전후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군사기지에 약 1,700개의 전술핵무기를 설치했다. 이들의 분포를 국가별로 보면 오키나와에 800개, 한국 600개, 괌 225개, 필리핀 60개, 대만에 12개였다. 미국의 역내 전술핵무기 수는 1967년에 3,200개에 달하면서 절정을 이뤘다. 이 중 1,300개가 오키나와에 배치되었다.⁶

미국의 지속된 핵공격 위협을 받은 중국은 1955년 핵개발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기 시작했다. 이런 인식은 중국공산당 서기처 중앙확대회의에서 공식 의제로 발의된다.⁷ 이듬해 중국공산당은 핵개발 정책을 의결한다.⁸ 이때까지만 해도 마오쩌둥(毛澤東)은 핵무기에 대한 두려움을 부인했고, 핵을 오히려 ‘종이호랑이’로, 즉 있으나 마나 한 무기로 치부했다.⁹ 왜냐하면 이를 보유해도 함부로 쓰지 못하는 무용지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¹⁰

그러나 1차 대만해협 위기사태는 마오의 인식을 바꾸어놓았다.¹¹ 그는 물론 핵무기가 전쟁의 승리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인정하지 않았다.¹² 재래식 무기

⁶ 崔必, “美日對中國研製核武器的認識與對策(1959~1969),” 『世界歷史』, 第2期 (2013), p. 8.

⁷ 마오는 1월 15일 회의에서 핵개발의 기회를 장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當代中國的核工業』(北京: 中國科學技術出版社, 1987), p. 14. 그리고 4월 27일 소련과 평화로운 목적의 핵개발 연구와 기술 지원에 관한 협정을 맺는다. 1956년 4월 마오의 중국의 핵무기 보유 결정은 그의 이론서 『10대관계론(論十大關係)』에서 공식화된다.

⁸ 중국 국무원은 저우언라이 총리 주재하에 1955년 1월 31일 〈國務院關於蘇聯建議幫助中國研究和利用原子能問題的決議〉를 논의하는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보이다시피 당시 중국이 소련에 핵개발 지원을 건의한 목적은 평화적인 핵 개발을 위한 것이었다. 薺麗姚, “毛澤東的核武器觀,” 『丹東師專學報』, 第24卷, 第2期 (2002), p. 25.

⁹ 마오의 ‘종이호랑이’ 발언은 1946년 8월 6일 미국 기자 아나 루이스 스트롱(Anna Lewis Strong)과의 인터뷰에서 피력되었다. 『毛澤東選集』, 第4卷, 北京: 人民出版社, 1991, pp. 1192~1195. 그의 이런 신념은 일본의 투항이 원폭 때문이 아니라는 관념에 근거했다. 그는 1945년 원폭 일주일 뒤 개최된 옌안(延安) 간부회의에서 일본의 투항에 결정적인 요인은 원폭이 아닌 소련의 참전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王光金, “毛澤東與新中國核武器的發展,” 『党史博采』, 第12期 (2017), pp. 20~21.

¹⁰ 王鴻章, “中國核威脅思想的歷史演進,” 『軍事歷史』, 第9期 (2012), pp. 7~10.

¹¹ 여담으로 그는 1950년 초 소련 방문 동안 소련의 핵실험 기록 영상물을 보고 핵무기의 위력에 대한 경이로움을 느꼈다고 전해진다. 일각에서는 이때부터 마오가 핵폭탄에 관심을 가졌다고 한다. 王光金, “毛澤東與新中國核武器的發展,” p. 21.

¹² 이런 그의 확신은 1955년 1월 28일까지 견지되었다. 그는 핀란드의 첫 중국대사 쑤스둔(孫士敦)을 배웅하는 자리에서도 중국 인민이 미국의 핵 협박에 놀라지 않을 것이고, 중국과 같이 국토가 광활하고 인구가 많은 나라는 미국의 원자탄으로도 멸망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쌀과 총으로도 중국은 미국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했다. 『毛澤東選集』, 第5卷 (北京: 人民出版社, 1991), pp. 136~137.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병력이라는 그의 의지가 확고했기 때문이다.¹³ 대신 자주 국방력을 강화하고 더 이상 제국주의의 무시와 미국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핵무기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기 시작했다.¹⁴

그러나 1956년 북한에 주둔한 중국군을 철수하던 시기에 중국과 소련의 갈등이 발생하면서 북중소 3각 관계에서 중국이 유지한 균형 전략에 불리한 양상이 연출되었다. 더 나아가 핵개발에 있어 소련의 기술이전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중국의 계획에는 차질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중소갈등의 심화는 결국 1969년 영토분쟁의 무력충돌로 이어졌다. 이후 중국은 소련을 ‘주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공식화했다. 소련과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중국은 소련을 따라 1961년에 북한과 동맹을 맺게 된다. 소련의 협력이 중단되었음에도 중국은 1964년에 핵실험에 성공하면서 명실상부한 핵보유국이 되었다.

북중동맹과 중국의 핵무기는 한반도 지역에서 내적 균형을 이루는 데 긍정적인 성과였다. 당시의 세력균형과 현상(quo) 유지를 위해 미중 양국 고위 인사들은 미국이 남한을, 중국이 북한을 통제할 것을 약속했었다. 헨리 키신저 국가안보보좌관과 저우언라이(周恩來) 총리가 1974년에 미중관계 정상화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맺은 ‘신사협정’이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의 국력 신장은 197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의 내적 균형 전략에 차질을 빚는다. 일본은 1980년대에 세계 2대 경제 대국으로 부상했다. 한국의 경제력도 상승하면서 국방력과 한미동맹의 증강 결과로 이어졌다. 특히 한반도에서의 세력균형이 한국과 한미동맹으로 기울어졌음을 중국은 1980년대 초에 인식하기 시작했다. 당시 덩샤오핑(鄧小平)은 베이징을 방문한 캐스퍼 와인버거 미국 방장관에게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남북한 간에 전쟁이 발생하면 북한이 남한을 이기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시인했다.

이후 중국은 개혁개방을 가속하면서 고도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경제력이 증강하는 성과를 올렸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자신만의 내적 균형을 위한 노력을 배가했다. 급속도로 증강한 경제력에 힘입은 중국은 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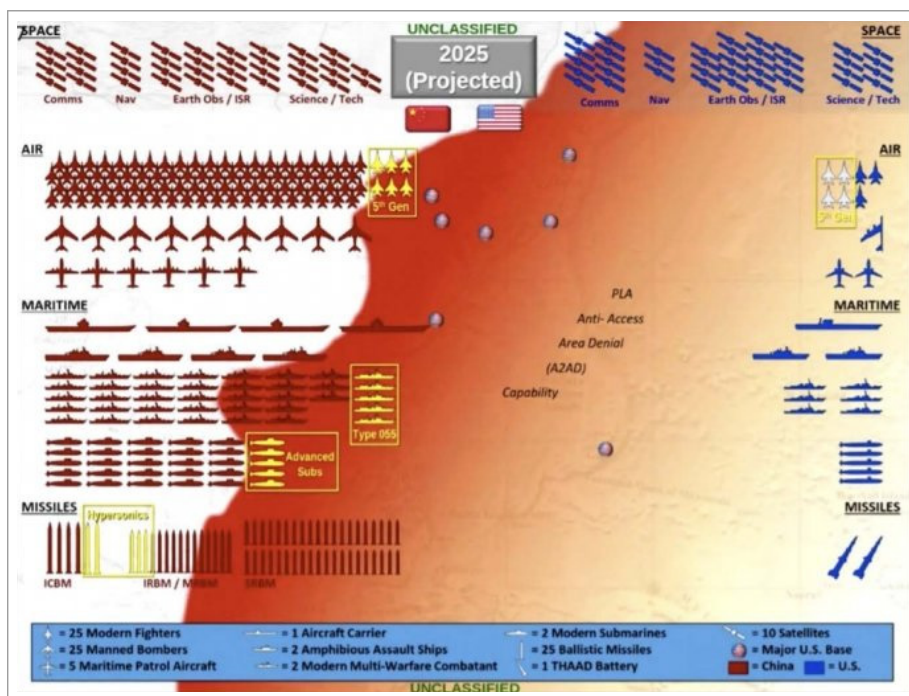
¹³ 1954년 10월 23일 마오쩌둥은 네루 인도 총리와 회담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다. 그는 1957년 11월 소련 방문에서도 재차 자신의 확신을 밝혔다. 핵으로 인구의 반을 잃어도 반이 생존하면 승산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의 발언은 소련과의 핵기술 협정에 대한 불안감을 희석시키려는 의도도 없지 않았다. 王光金, “毛澤東與新中國核武器的發展,” p. 21.

¹⁴ 『毛澤東軍事文集』, 第6卷 (北京: 軍事科學出版社, 1991), p. 374; 『建國以來毛澤東軍事稿』, 中卷, (北京: 軍事科學出版社, 2010), p. 308.

사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해군력 증강의 당위성과 정당성 마련을 위한 전략구상에 들어갔다. 그 결과 1985년과 1986년에 중국의 해양방어전략 개념이 소개되었다. 이를 토대로 중국의 해군력 강화 사업이 1990년대부터 본격화되었다.

오늘날 중국은 항공모함 2척과 다양한 해군 핵무기(SLBM 등), 그리고 대규모 해군 함대 편대를 갖춘 강한 해군력을 가지고 있다. 동북아시아 국가들을 압도하는 규모의 해군력을 갖춘 것이다. 미국은 동북아시아의 안보와 전략적 이익의 수호를 위해 아직도 하와이에 주둔한 인도-태평양 함대에 의존한다. 주한미군에 배치된 함대가 없다. 주일미군 기지에 배치된 해군력은 제한적이다. 동북아시아만 놓고 보면 미국의 해군력은 규모상 중국에 대응하기에 역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아래의 <그림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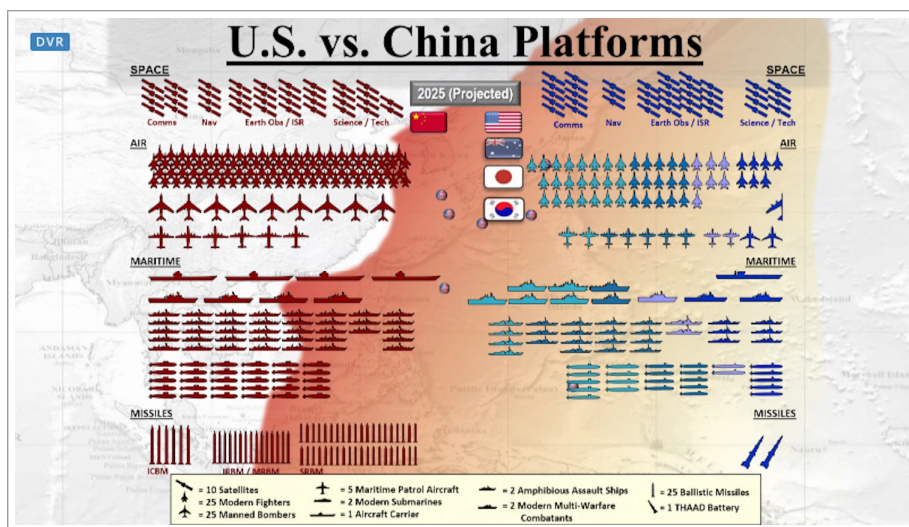
<그림 1> 2025년도 美 인도-태평양 함대와 중국의 군사력 예상도



출처: “(The Other) Red Storm Rising: INDO-PACOM China Military Projection,” 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 September 15, 2020, <<https://fas.org/publication/pacom-china-military-projection/>> (Accessed September 14, 2023).

중국의 군사력은 현재 미국, 호주, 일본과 한국 등 4국의 군사력을 합한 것보다 더 큰 규모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 일본과 한국은 미국이 인태지역뿐 아니라 동북아지역에서 가장 의존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갖춘 동맹들이다. 그럼에도 이들의 군사력을 미국의 인태함대 전략의 것과 모두 합쳐도 중국군에 열세라는 것이 통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2〉 참조).

〈그림 2〉 미국, 호주, 일본, 한국 군사력 대(對) 중국 군사력 규모 비교



출처: “(The Other) Red Storm Rising: INDO-PACOM China Military Projection,” *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 September 15, 2020, <<https://fas.org/publication/pacom-china-military-projection/>> (Accessed September 14, 2023).

상기한 두 그림에서 나타나듯 중국의 내적 균형 전략의 노력이 상당한 성과를 올렸다고 평가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 역시 외적 균형 전략을 통해 한미일 3국의 군사 관계와 일본-호주의 군사 관계를 강화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현실은 미국이 가장 신뢰하고 의존할 수 있는 이들의 군사력을 미국의 인태함대와 합해도 중국에 대항하는데 역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대규모의 군사력을 가지고 최소한 역내에서 영향력 확대를 위한 노력을 시진핑(習近平) 시기에 들어와 가속화하고 있다. 중국이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이른바 중화민족의 부흥 실현을 위한 ‘중국의 꿈(中國夢)’을 추구하기 시작한 것이 이의 방증이다. 2013년에 소개된 ‘중국의 꿈’은 중화민족의 부흥은 물론 인류운명공동체의 구현을 통해 중국 위계 중심의 질서를 구축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이 공산주의를 실현하려는 공산국가로 생존하려는 결의가 강한 만큼 중국의 대외관과 세계관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다르다. 중국은 미국과의 경쟁을 체제경쟁으로 인식한다.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세계에 입증하면서 공산주의를 실현하는 국가로 거듭나겠다는 의미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2013년 취임 이후 가진 당간부 회의 석상에서 “자본주의는 소멸할 것이며 사회주의가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다(资本主义最终消亡、社会主义最终胜利)”라고 호언한 바 있다.¹⁵ 이를 위해 그는 2017년 19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의 보고서에서 중국이 글로벌 리더로서 성장해야 하는 사명의 달성을 위해 종합 국력과 국제적 영향력을 증강시킬 수 있는 사회주의시스템의 강화를 또한 촉구했다.¹⁶

중국은 2013년부터 이 같은 국정 목표를 수반하는 일련의 전략구상을 연속해서 발표해왔다. 2012년 시진핑 주석은 중국 공산당 총서기로 선출되었고 이듬해 3월에 국가주석에 선출되었다. 그는 총서기로 선출된 직후 ‘중국몽(中國夢, 중국의 꿈)’을 선포했다. 중화민족의 부흥을 2049년까지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것이다.

중국의 꿈은 다시 말해 1840년 아편전쟁 때부터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때까지, 중화민족이 외세에 당한 수모와 수치에서 회복하고 그 이전의 영광을 회복하겠다는 민족적 염원을 의미한다. 그리고 중국공산당은 중국이 사회주의 강국으로 재탄생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으로 지금까지 강조해 왔다. 이런 목표를 위해 그는 2013년에 ‘일대일로(BRI)’, 2015년에 ‘중국제조 2025(Made in China 2025)’, 2020년에 ‘중국표준 2035(China Standard 2035)’ 등의 전략 목표를 발표했다. 2014년에는 ‘신개발은행(NDB)’과 2015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설립했다.

이런 연유에는 베이징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연평균 12%의 고성장률을 기록하면서 경제적 특수효과를 누린 중국의 부상이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 결정적이었다. 2009년 중국은 독일을 제치고 제3대 경제 대국, 2010년에는 일본을 제치고 제2대 경제 대국의 반열에 올랐다. 이는 역으로 체제경쟁에서 2,3위에게 승리를 일궈

¹⁵ “关于坚持和发展中国特色社会主义的几个问题,” 『中国共产党新闻』, 2019年 3月 31日. 본 연설은 시진핑이 2013년 1월 5일 신진 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이 18대 정신을 토론하기 위한 학습회의에서 전해진 것이다. (这是习近平总书记2013年1月5日在新进中央委员会的委员、候补委员学习贯彻党的十八大精神研讨班上讲话的一部分.).

¹⁶ 习近平, 『决胜全面建成小康社会, 夺取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伟大胜利』(北京: 人民出版社, 2017年).

냈고 남은 건 미국만이라는 의미였다.

이런 기세에 힘입어 중국은 ‘중국제조 2025’, ‘중국표준 2030’을 발표하면서 미국마저 제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그리고 2017년 제19차 중국공산당대회에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달성 목표를 이루기 위한 일정표를 소개했다. 이는 2021년에 이른바 ‘샤오강(小康)’사회를, 2033년에 사회주의 현대화의 기초를 구현하고, 2049년에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런 중국의 결의는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은 지난 2021년 시진핑 주석의 연설문에서 잘 드러났다. 연설문에서 그는 미국과의 전략경쟁에 강력하게 맞서겠다는 의지를 공개했다. 그 요지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중국이 공산국가로 존재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기 때문이다. 시진핑은 중국이 마르크스주의를 지속해서 발전시키고 완성시키는 것을 중국공산당의 사명 중 하나로 역설해 왔다. 중국공산당의 신념은 마르크스주의를 중국화하는 데 적지 않은 성공을 하면서 이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자신감에 기반한다. 반면 이런 중국공산당과 시진핑의 마르크스주의 견지와 사회주의 강국 달성 목표가 서구에게 문제가 되는 점은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해 세계와 시대를 인지하는 데 있다. 즉, 세상을 마르크스주의와 사회주의를 통해 보고, 시대적 의사결정을 위한 판단하겠다는 결의의 방증이다. 이 과정에서 민주자본주의 진영 국가와 중국 간에 인식 차이의 발생이 불가피한 현실을 인정한 한 셈이다.

둘째, 사회주의 노선을 견지하면서 자신의 길로만 가야 한다고 천명했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이 앞으로 그 어느 누가라도 “‘선생’처럼 기고만장한 설교”하는 것을 “절대 듣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¹⁷ 즉, 외세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과 결정하면서 계속해 정진하는 결의를 밝힌 대목이다.

그러면 중국식 현대화의 새로운 모델, 인류문명의 새로운 형태라는 결과 양산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선언했다. 여기에 중국의 ‘핵심이익’ 수호가 관건인 만큼 강력한 군사력이 수반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런 의미에서 중국의 꿈 중 하나에 중국 인민해방군이 세계 일류 수준의 군사력을 구비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그는 연설문에서 자인했다.

셋째, 중국이 주장하는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이다. 이는 중국의 꿈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최종 목표다. 중국은 인류운명공동체 구축 과정에 관한 설명에서 중

¹⁷ 习近平, “在庆祝中国共产党成立100周年大会上的讲话,” 『新华社』, 2021年 7月 1日.

국의 역사 왜곡 인식을 여실히 드러내면 이런 꿈의 본질적인 문제점을 역시 노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시진핑은 중국이 지난 5000년 역사 동안 정의를 숭상하고 야만적이고 포악한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는 민족임을 상기시켰다. 이런 맥락에서 중화민족은 과거에도 그 어떠한 민족을 압박하거나 괴롭히거나 노역을 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런 행태가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더 나아가 그는 “중화민족의 피(DNA)에는 남을 침략하고 패권을 칭하는 유전자가 없다”고 부연했다.¹⁸

그러나 중국을 자극하고 위협하는 세력에 대한 대외적인 경고도 노골적으로 잊지 않고 표현했다. 시진핑은 “외세가 중국을 괴롭히면 머리가 깨지고 피를 흘릴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러면서 “어떤 외세의 괴롭힘이나 압박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누구라도 중국을 괴롭히거나 압박하거나 노예로 삼겠다는 망상을 품는다면 14억의 중국 인민이 피와 살로 쌓은 강철 만리장성 앞에서 머리가 깨지고 피가 흐를 것”이라며 전 중국인의 말초신경을 자극시켰다.¹⁹ 그는 인류운명 공동체 완성의 시기를 “중화민족이 남에게 유린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던 시대”의 종결로 정의했다.²⁰

Ⅲ. 미국의 외적 균형 강화 추동 요인

미국의 대중국 전략경쟁의 최종 목표는 중국공산당의 대외 행위의 교정이다. 중국공산당의 교체가 희망 사항이겠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미국도 잘 알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미국에게 최선의 선택은 최소한 인권과 대외적 행동 영역에서 공산당을 교화하는 것이다. 특히 이는 중국공산당의 불법적이고 불공정하고 불공평하면서도 공세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의 본질적인 변화를 핵심으로 한다. 미국의 대중국 압박이 인권에서부터 무역, 기술, 군사 영역에까지 전방위적으로 강경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미국이 특히 중국에 실망한 부분은 중국의 대외적 행태가 불변한 데 있다. 오랜

¹⁸ 习近平 “在庆祝中国共产党成立100周年大会上的讲话”.

¹⁹ “外勢欺負，頭破血流(외세기부 두파혈류) ‘외세가 중국 괴롭히면 머리 깨지고 피 흘릴 것’,” 『중앙일보』, 2021.7.21.

²⁰ 习近平, “在庆祝中国共产党成立100周年大会上的讲话”.

기간 미국과 교류와 협력을 지속해서 유지했음에도 중국의 행동 개선의 의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중국이 더 독단적이고 더 독선적이며 비협력적인 태도와 자세로 미국에 일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2023년 1월 이후부터 거의 매달 개최된 미중 고위급회담에서 미국 측의 주장은 일관되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이유였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다. 중국의 대외적인 행태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었다. 중국은 경제적인 급부상으로 필요 충족의 자원을 해외에 더욱 의존하게 되었다. 해외에서 필요한 자원을 충족하려는 중국의 방식에 미국은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중국의 경제 규모에서 국내에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자원은 이미 고갈된 지 오래다. 에너지자원에서부터 식량, 광물과 기술 등, 영역과 상관없이 중국은 대부분의 자원을 해외에서 조달할 수밖에 없는 경제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이의 원활한 수급을 기대한 중국에게 해외 의존도가 커질수록 기존의 국제질서, 국제제도, 국제법과 국제규범은 장애 요인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다시 말해 중국이 발전하면 할수록 자원에 대한 수요는 더욱더 커진다. 이를 충족하는 데 있어 중국에게 기존의 국제질서, 제도, 법과 규범은 장애 요인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중국이 오늘날 이를 무시하고, 위반하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유다. 14억 인구를 가진 중국 경제 규모가 5% 전후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공공재와 자원 조달을 전제로 한다.

특히 4차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첨단과학기술의 자원 확보가 중국의 국가적 명운을 결정한다는 뜻이다. 4차 산업의 발전속도를 감안하면 첨단과학기술의 이전 속도도 더욱더 가속되어야 한다. 문제는 이런 기술 자원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과욕을 부린다는 데 있다. 이런 중국의 과욕으로 중국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 즉, 중국이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수단과 방법에 의존하는 행태를 보이는 주된 원인이다.

오늘날 미국은 중국의 이런 행위가 교정되지 않으면 자유 국제질서를 중국이 심각하게 위협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과거 냉전 시기에 중국의 외교 목표가 혁명의 세계화와 세계의 공산화였다면 오늘날은 세계 구성원의 독재정치화, 독재정권의 양성이다. 미국은 시진핑의 ‘중국의 꿈’이 중화민족의 부흥을 넘어서 자유 질서 체제와 민주주의를 전복하려는 목적과 의도를 내포한 것으로 평가한다. 그리고 이의 시발점을 일대일로 군사화와 디지털화하려는 일명 ‘디지털 실크로드’로 인식한다. 디지털 실크로드 프로젝트의 주 내용은 투자수혜국

에 4차 산업 인프라의 구축에 있다. 이와 동시에 이들 수혜국의 정권을 독재의 길로 유도하는데 전략을 내포하고 있다.

중국은 디지털 실크로드의 결과물을 사회통제시스템으로 전환하여 국민을 통제, 검열, 속박하는 등의 노하우 이전으로 이들을 현혹하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이 이들 수혜국의 정상들에게 감언이설로 중국의 ‘인류운명공동체’에 합류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 이들과 오랜 시간 함께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에 중국은 이들의 통치의 기반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주는데 공헌할 수 있다고 자부한다. 미국이 중국의 ‘디지털 실크로드’를 ‘디지털 독재’ 프로젝트로 인식하는 이유이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중국의 ‘디지털 실크로드’가 기존의 자유주의 국제질서 기반과 근간을 흔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추진되는 것으로 인식한다. 이유는 IT, AI, 5G, Big Data 등의 기술을 악용하는 노하우를 제3세계국가에 전수하기 때문이다. 즉, 제3세계 국가 지도자들이 첨단과학기술을 장기집권과 사회 통제 및 감시의 수단으로 이용함으로써 인류 보편적 가치는 물론 민주주의 가치와 이념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법행위를 부추기고 있다.²¹

이런 미국의 인식은 2017년 12월 18일 발표된 미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NSS)에 투영되었다.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를 경쟁적 관점에서 조망하기 시작한 것이다. 동 보고서는 중국과 러시아를 “미국의 가치와 이익에 정 반대되는 세계를 만들기 원한다(China and Russia want to shape a world antithetical to U.S. values and interests)”는 것으로 분석하면서, 이들을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세계질서에 대한 수정주의자(revisionist)로 정의했다.²²

이듬해 1월 19일 발표된 미국 국방전략보고서(NDS)는 국방목표를 15년 만에 전환시켰다. 테러리즘 억제 대신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 보고서는 국가안보전략보고서(NSS)의 핵심 목표를 어떻게 군사적으로 수행할지에 대한 내용을 소개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증대하는 위협”에 적극 대응해야하는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보고서 발표 당일 중국과 러시아를 “다른 나라들의 경제적, 외교적, 안보적 결정에 대한 거부 권한을 행사하며 그들의 ‘독재 모델’에 부합하는 세계를 창조하려는 수정주의 국가들”로 규정하고 미국이 이 두 나라의

²¹ Newt Gingrich, *Trump vs. China* (N.Y.: Center Street, 2019).

²² 최강, 신범철,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 2017』 시사점,” 『오피니언뉴스』, 2017.12. 29., <<http://www.opinio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837>> (검색일: 2023.12.2.).

“커지는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했다.²³

2020년 5월 20일 백악관이 출간한 <중국 전략보고서>에서 중국에 대해 전례에 없는 강경한 논조와 입장을 공식적으로 소개했다.²⁴ 핵심요지는 중국이 공산국가에 있었다. 의도는 따라서 중국의 정체성을 미국이 직시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그러면서 미국이 시진핑을 ‘국가주석(President)’이 아닌 ‘중국공산당 총서기(General-Secretary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CCP)’로 칭할 것을 알렸다. 또한 중국의 호칭도 더 이상 중화인민공화국(P.R.C.) 또는 중국(China)가 아닌 ‘중국공산당(CCP)’을 사용한 것도 이런 의도를 반영하기 위함이었다. 이는 미국이 적대하는 정권에서 흔히 사용하는 외교술수다. 그 정권의 국가와 국민은 아무런 죄가 없다는 데서 착안한 것이다.

미국의 태도 변화에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중국공산당의 정치개혁에 대한 실망감에 있었다. 중국의 개혁개방 결정을 미국은 즉각 환영했었고, 이의 성공을 통해 중국이 더 개방되고, 민주화된 국가와 사회로 진화할 것을 기대했었다. 이른바 ‘중국 진화론(China evolution)’을 거의 신성시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런 확신에 미국은 중국에 포용정책을 고수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포용정책은 2020년 7월에 종결되었다.

일대일로로 통해 세계로 진출하겠다는 중국의 전략 계획에 미국과 동맹국은 인태전략과 쿼드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2015년 중국이 세계의 제조업을 선도하겠다는 야심찬 전략 계획이 ‘중국제조 2025’를 통해 발표되자 2017년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는 관세인상으로 맞대응했다. 중국이 2020년 첨단과학기술 분야에서 선도적인 자리매김을 위한 청사진을 ‘중국표준 2035’로 발표하자 미국은 세계공급망(Global Supply Chain, GSC)를 재편하려는 노력을 배가하기 시작했다.

이런 일련의 관정에서 기술(technology)이 국제관계의 갈등을 유발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오늘날 미중 사이에서 불거진 기술안보문제는 기술의 비대칭적 발달 구조에서 불리한 위치를 극복하겠다는 중국의 의지와 결의가 발단으로 작용한 것이다.

이를 추동시킨 요인은 4차 산업혁명을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기술력의 부족이었

²³ “美 안보 최우선은 테러와의 전쟁 아닌 中·러시아와 경쟁,” 『조선일보』, 2018.1.22.

²⁴ The White House, “United States Strategic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May 20, 2020.

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중국은 무리수를 두기 시작했다. 즉, 선진과학기술을 불법적으로 확보하는 행위를 자행하기 시작한 것이다. 중국은 선진국에서 선진과학기술의 편취와 탈취를 일삼았다. 중국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과학기술의 열세를 만회하려는 동기가 작동한 결과였다. 기술 발전을 위한 중국의 의지와 결의가 잘못된 것임이 판명되는 대목이다.

중국은 또한 이렇게 축적된 기술력으로 사이버와 현실 공간을 침투하는 행위를 일삼았다. 그러면서 상대국의 동태를 관찰, 감시하고 정보를 밀반출할 수 있다. 정보전에서 상대방을 먼저 제압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즉, 경쟁국과의 심리전에서 우위를 점하는 전략 시도가 포착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미국은 중국의 화웨이사(社)의 모든 전자제품에 장착된 ‘백도어 칩(backdoor chip)’으로 미국인의 개인정보는 물론 정부, 기업과 군사 기밀의 유출이 가능하다는 우려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특히 중국이 ‘중국제조 2025’ 백서의 발간을 통해 인공지능, 5G, 4차 산업에서 선도국가로 부상할 결의를 밝히면서 미국의 우려는 커졌다. 미국은 중국의 첨단과학기술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에 대한 결의보다 내재된 전략적 함의를 더욱 우려한다. 첨단과학기술 분야에서 중국이 가격경쟁력을 통해 자국 및 제3국의 전자기술 제품에 ‘백도어 칩’을 심어 미국의 시장과 기관에 침투시켜 미국 정보와 기술의 탈취, 편취, 절도 등의 불법 행각이 더욱 용이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미국 국가안보에 새로운 최대 위협요소로 인지하게 됐다.

그 이유는 기술안보문제가 더 이상 순수한 기술과학 분야에서의 기술이전의 문제가 아닌 데 있다. 4차 산업 혁명과 ‘스마트’ 개념이 접목된 상황에서 정보의 보안력이 더욱 취약해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 나라마다 강력한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국가 안보 차원에서 기술 안보의 위험성의 판단과 결정은 기술안보 관련 제품의 내재적 위협 성질의 유무 여부와 그 위협의 성질이 국가 안보에 어떠한 위험성을 내포하는지에 근거한다.

이런 배경에서 발표된 미국의 인태전략은 따라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중국이 이 같은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행위를 저지하기 위함이다. 중국이 세계의 공공재와 기술 자원을 무작위로 무차별하게 독식하려는 행위를 막아야 한다. 이런 이유가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의 당위적 필요성을 합리화한다. 중국의 이런 행위를 통제하지 않으면 중국이 계속해서 가치, 규범, 제도, 질서를 무시하고 위반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자원이익 때문에 이를 자국의 영해로 간주한다. 더 나아가 제3세계 자원 생산국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점에 접근하면 더 많은 자원이익을 획득하려는 전술을 여전히 전개하고 있다. 가령, 이런 접근수단으로 가장 잘 활용되고 있는 것이 일대일로 사업이다.

일대일로 사업을 명분으로 자원보유국에 경제적으로 진출하여 ‘협력’의 방식으로 ‘공동’ 생산을 도모하나 결국 중국이 독식하는 구조로 전환하는 노력이 최근 드러나고 있다. 일대일로를 이른바 ‘부채 함정’ 사업으로 국제사회가 인식하는 가장 큰 이유다. 또한 4차 산업의 발전을 위해 기술 편취와 탈취를 일삼는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행해진다. 즉, 지식재산권을 존중하면서 기술이전과 빅데이터 확보를 기대하는 것은 중국의 4차 산업 발전에 치명적이다. 그 발전속도에 부응할 수 없는 내재적 구조 때문이다.

미국의 또 다른 목적은 소다자 협의체를 적극 활용해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데 있다. 주지하듯 미국이 더 이상 이런 임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는데 국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의 전략은 소다자 협의체를 전방위적이고 다층적으로 결성하고 이들의 네트워크화 통해 견고하게 구축하는 것으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유사시 중국 견제 전략을 본격적으로 작동시켜야할 때 이들이 합체함으로써 이른바 ‘트랜스포머’와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다양한 영역과 분야에서 개별적으로 형성된 협의체가 합체되어 트랜스포머로 변신하면서 중국을 압도할 수 있는 전략계산이 복선에 깔린 것이다.

이런 소다자협이체가 현재는 각기 다른 분야에서 각기 다른 나라들로 팀을 형성하고 분업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그 실체를 가늠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명확한 사실 중 하나는 이런 트랜스포머가 중국에 대항할 수 있는 트로이 목마와도 같은 존재로 설계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전략의 핵심 기조는 세 가지다. 하나는 공산/독재국가의 독단적이고 공세적이고 반인륜적인 행위를 교정하는 것이다.²⁵ 또 하나는 이를 위해 다자주의를 강조한다. 그러나 그의 다자주의 개념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가치와 이념을 공유하지 않는 나라에 대해 일시적으로 배타적이고 비개방적이다.²⁶ 그러

²⁵ Antony J. Blinken and Lloyd J. Austin III, “America’s partnerships are ‘force multipliers’ in the world,” *The Washington Post*, March 15, 2021; and “Remarks by President Biden in Press Conference,” The White House Briefing Room, March 25, 2021.

²⁶ Joe Biden, “Why America Must Lead Again,” *Foreign Affairs*, Vol. 99, No. 2

나 국제법, 제도, 규범, 가치와 질서를 존중하고 준수할 결의로 전향한다면 이들을 환영한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 그래서 미국이 인태전략을 두고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른 하나는 ‘뜻을 같이하는 나라(like-minded states)’의 ‘중국 공포(China phobia)’를 미국이 책임지겠다는 것이다. 즉, 미국의 반중국 연대에 참여하는데 중국의 보복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는 ‘쿼드’ 정상회담에서 이를 강조했다.²⁷ 그리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역시 이런 입장을 나토(NATO)의에서 재확인했다.²⁸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미국은 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여력과 능력이 부족하다. 더욱이 미국의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최고에 달했던 냉전시기의 42%에서 24%로 하락하면서 동맹과 우방에게 협력의 대가로 제공할 수 있는 공공재(자유무역체제, 국제통화, 국제안보 유지 능력 등)가 고갈되어 가고 있다. 결국 미국은 대등한 조건에서 동맹과 우방의 협력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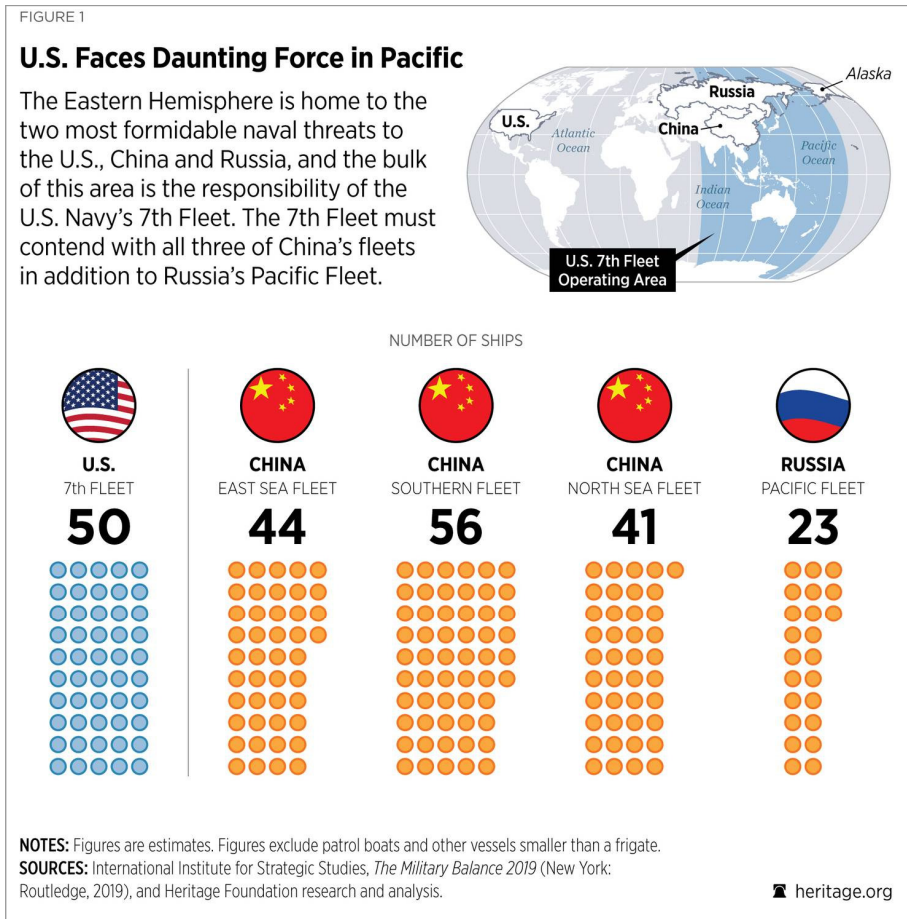
특히 미국은 인태지역과 동아시아에서 동맹의 방어와 중국 견제라는 두 가지 목표를 수행해야 한다. 일본을 비롯하여 한국, 필리핀과 더불어 대만까지의 방어 책임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중국의 군사적 위협과 도발에 독자적인 방어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또한 미국이 이 지역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연대에 대응하기에도 역부족한 것이 현실이다(〈그림 3〉 참조).

March/April 2020, pp. 64~76.

²⁷ “Quad Leaders’ Joint Statement: ‘The Spirit of the Quad’,” The White House Briefing Room, March 12, 2021.

²⁸ Anthony J. Blinken, “Reaffirming and Reimagining America’s Alliances,” NATO Headquarters, March 24, 2021.

〈그림 3〉 미중러 3국의 인태지역에서의 해군력 비교



출처: “International Institute for Global Strategic Analysis,” *The Military Balance 2019*, February, 2019, <<https://iigsa.org/south-china-sea-military-comparison/>> (Accessed September 14, 2023).

하물며 미국의 해군력과 동맹 및 우방의 것을 모두 합쳐도 중국에 비해 월등히 열세를 보이는 것도 현실이다 (〈그림 4〉 참조).

〈그림 4〉 미국과 우방의 남중국해 중국 군사력 비교



출처: “South China Sea Military Comparison,” *International Institute for Global Strategic Analysis*, September 29, 2021, <<https://iigsa.org/south-china-sea-military-comparison/>> (Accessed September 14, 2023).

이런 조건에서 미국은 새로운 전략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다. 이른바 ‘인도-태평양’ 전략, ‘쿼드(Quad, 4개국 안보협의체)’, ‘가치동맹’, ‘클린네트워크’, ‘경제 번영 네트워크(EPN)’, ‘기술동맹’, ‘반도체 동맹’ 등의 전략은 ‘뜻을 같이하는 나라 (like-minded states)’와 협력을 전제한다. 그리고 이들의 전략 명칭에서 나타나 듯 미국은 다양한 명분에서 중국 압박의 당위적 필요성을 모색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동맹과 우방에게 설득하여 참여를 유발하는, 외적 균형을 추진하고 있다.

IV. 미국의 외적 균형 노력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대응

중국으로서는 미국 주도의 전략이 자국의 핵심이익을 위협하는 직접적인 전략으로 인식한다. 즉, 중국은 미국의 일련의 견제 전략을 자신을 포위하기 위한 네트워크/연대망을 강화해 중국의 핵심 이익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전략으로 보고 있다. 영토주권과 완정 면에서 미국은 가치와 인권 외교를 통해 대만, 홍콩, 신장, 티베트 문제로 중국의 정당한 영토주권을 위협하고 영토를 분열하려는 시도로 인지한다.

중국공산당의 변혁, 즉 행동 교정을 통해 중국공산당의 영도력 근간과 기반을 흔들려는 것을 다양한 전략구상을 통해 실현하려고 인식한다. 또한 미국이 디커플링과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을 통해 중국이 자기 방식(사회주의)대로 발전할 수 있는 고유의 권리와 권한에 위협과 압박을 증강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이 앞서 언급한 미국 주도의 일련의 전략구상을 두고 이른바 ‘소형 나토’, ‘동아시아의 나토’ 등으로 비판하는 이유를 볼 수 있다.

이런 비판이 고조에 달했던 것은 2022년 3월 중국의 ‘양회’ 기간 동안 개최된 중국 외교부장의 기자회견 자리에서였다. 그는 미·중 관계를 답변하는 자리에서 미국의 잘못된 중국 정책을 통제하지 않으면 그 재앙적인 결과의 책임 소재를 반문하며 항의했다. 더 나아가 그는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이성적이고 건전한 바른 궤도를 완전히 벗어났다”며 “미국이 말하는 경쟁은 사실상 전방위적 억제와 탄압이며, ‘내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제로섬 게임”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인태전략을 두고 그는 “자유와 개방을 표방하면서 실제로는 패거리를 만들고, 각종 폐쇄적이고 배타적 울타리를 만들며, 지역 안보를 수호한다면서 실제로는 대항을 유발하고 아태판 나토를 획책한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중국이 “시종 시진핑 주석이 제시한 상호 존중, 평화적 공존, 협력·공영의 원칙에 따라 중·미 관계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동하는 데 노력할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위협팽창’이라는 전략적 불안을 해소하고, 제로섬 게임의 냉전적 사고를 버리길 희망한다”고 호소했다.

중국은 미국의 견제전략을 자신에 대한 포위망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인식한다. 중국이 이를 두고 이른바 ‘소형 나토’, ‘동아시아의 나토’ 등으로 비판하는 이유다. 이에 대한 중국의 대응전략은 자연히 방어능력과 타파능력의 강화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다.²⁹

이런 목적의식은 중국의 해상방어 작전전략의 수정 및 확대, 그리고 새로운 개념의 도입으로 이어졌다. 가령, 중국이 21세기에 들어와 이른바 ‘대양해군’의 구축을 가속화하고, ‘A2AD(anti-access, ares denial, 반접근-지역거부)’ 전략개념의 전력화를 위해 해상방어의 마지노선인 제1도련선을 중심으로 해상작전전략을 재편하는 노력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다.³⁰

²⁹ 2021년 4월 7일 중국 외교부 부장 왕이와 대변인은 같은 날 이 같은 평가를 동시에 밝혔다.

³⁰ 제1도련선은 극동러시아지역의 쿠릴 열도에서 시작해 일본, 중화민국, 필리핀, 말라카 해협에 이르는 중국 본토 근해를 따라가는 선으로 중국에게 이는 미국의 침략을 막아야 하는 최후의 방

미국의 포위망에 대항하기 위한 중국의 전략은 다양화되고 있다. 우선 남중국해에서 9단선을 자신의 영해경계선으로 공식화하려는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면서 군사적 방어능력 또한 증강하고 있다. 남중국해에서 대부분의 도서를 요새화한 것이 이의 방증이다. 또한 중국은 이 해역에 대한 외국 군용기의 진입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3년에 방공식별구역(CADIZ)을 획정했다.

반면, 중국은 이웃 국가의 방공식별구역은 존중하지 않는 자세로 일관한다. 이 유인측은 방공식별구역이 국제법적 구속력이 부재한 규범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즉, 규범은 준수 의무가 없고, 위반한다 해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이 중국의 입장이다. 이런 이유로 중국은 타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존중하지 않는 도발을 일상화하면서도 국제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 중국은 일대일로 사업을 통해 중국군의 해외진출을 꾀하고 있다. 중국은 일대일로 사업을 소개한 이듬해인 2014년부터 일대일로로 군사화를 위한 전략개념의 수립에 착수했다.³¹ 그러면서 일대일로의 일부 거점지역에 군사적 성격과 기능을 부여하기에 이르렀다.

중국이 일대일로 사업과 군사적 대국의 의무를 접목해 대국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겠다는 구상은 미국과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맞대응하기 위한 대응전략으로 중국 군부는 확신한다. 중국군은 미일 양국이 2010년부터 ‘인도-태평양’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이유를 중국의 경제력이 일본을 추월한데 대한 대응 태세에서 찾고 있다. 이후 본격적으로 발생한 남중국해의 영유권 분쟁과 갈등 양상이 중국 해군의 부상으로 이들에게 불리하게 전개되면서 이들의 대중국 견제력 강화를 위한 불가피한 전략으로 ‘인도-태평양’ 전략이 양산된 것으로 인식한다.³² 그러므로 중국군의 일대일로 사업의 보호와 해외이익의 수호라는 명분으로 해외 군사 활동 영역과 범위의 확대는 지속될 것이다.

외교적으로 중국은 미국과의 공존을 위한 전략 입장을 지속해서 표명하고 있다. 군사적으로 중국의 내적 균형이 미국과 대등한 수준에 이를 때까지 취하고자 하는

어선이고, 미국에게는 중국의 태평양 진입을 막아야 하는 최전방의 방어선이라는 전략적 의미를 함유한다.

³¹ “习近平接见第五次全国边海防工作会议代表, 李克强张高丽参加,” 『新华社』, 2014年 6月 27日; 白永秀, 王颂吉, “丝绸之路的纵深背景与地缘战略,” 『改革』 第3期 (2014) p. 68; 刘海泉, “‘一带一路’战略的安全挑战与中国的选择,” 『太平洋学报』 2第23卷 第2期, 92015), pp. 72~79; “姚云竹: 人民军队在‘一带一路’中的战略和作用,” 『祖国网』, 2017년 9月 14日, <<http://www.zgzzs.com.cn/index.php/Article/detail/id/9120.html>> (검색일: 2023.12.2.).

³² 赵青海, “‘四国同盟’: 构想与现实,” 『国际问题研究』, 6期 (2007), pp. 28~32.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이 중국이 오늘날 특히 강조하는 ‘통제와 관리’다.

미중 전략적 경쟁 관계에 관한 중국의 ‘관리·통제(중국어 표기, 管控, 이하 ‘관제’)’ 입장은 일찍이 밝혀졌다. 시진핑 주석은 이 개념을 이미 부주석일 때였던 2011년에 키신저 박사와의 회담 자리에서 소개했다.³³ 당시 국가부주석이었던 시진핑은 방중한 헨리 키신저 박사와의 회담에서 이 같은 입장을 처음 밝혔다.³⁴ 이어서 2014년에 버락 오바마 전 미 대통령이 제6차 미중 전략 경제 대화 개막 연설에서 양국 간의 상이점에 대한 ‘관제(responsibly manage)’의 필요성을 인용했다.³⁵

이들이 강조한 ‘관제’의 방식은 아무리 민감하고 입장차이가 극명한 문제에 대해서도 대화와 협력으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관제’의 인식을 오늘날 바이든 대통령도 중국 측과의 회담에서 자주 인용하는 양상을 보였다.

중국의 입장에서 중미 양국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를 ‘관제’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양국이 현재 처한 상황 때문으로 중국 측은 설명한다. 그리고 이런 이유를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전략적 상호신뢰가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양국 사이에 전략적 대립이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리스크 때문이다.

둘째, 중미 양국이 서로를 지역 안보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어 전략적 오판이 가져다 줄 리스크가 가중될 수밖에 없는 안보구조 때문이다.

셋째, 중미 양국이 군사적으로 서로 견제하는 방위 범위가 확대되어가는 추세가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넷째, 영토주권 분쟁문제에서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려는 의지가 나날이 증강하

³³ “习近平会见美国前国务卿基辛格,” 『新华网』, 2011年 6月 28日, <http://news.xinhuanet.com/2011-06/28/c_121593256.htm> (검색일: 2023.12.1.). 이후 오바마 대통령도 2014년 6차 미중전략경제대화 개막 연설에서 이를 인용한 바 있다. “Obama’s Statement to the U.S.-China Strategic and Economic Dialogue,” The White House, July 8, 2014, <<http://iipdigital.usembassy.gov/st/english/texttrans/2014/07/20140709303557.html#axzz3HUqT0ohj>> (검색일: 2023.12.1.). 지난 11월 16일 바이든 대통령도 시진핑 주석과의 화상 정상회담에서 이를 의미하는 표현을 인용했다.

³⁴ “习近平会见美国前国务卿基辛格,” 『新华网』, 2011年 6月 28日, <http://news.xinhuanet.com/2011-06/28/c_121593256.htm> (검색일: 2023.12.1.).

³⁵ “Obama’s Statement to the U.S.-China Strategic and Economic Dialogue,” The White House, July 8, 2014, <<http://iipdigital.usembassy.gov/st/english/texttrans/2014/07/20140709303557.html#axzz3HUqT0ohj>> (검색일: 2023.12.1.).

기 때문이다.

다섯째, 중미 양국이 해양질서에서 보여주는 차이점이 극렬해지면서 마찰이 한층 더 강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³⁶

중국의 대미 ‘관계’능력에 대한 자신감은 19차 당대회 시진핑의 보고에서도 드러났다. 보고서는 오늘날의 국제정세를 ‘세계의 권력 구도에 균형이 이뤄진(国际力量对比更趋平衡)’ 것으로 평가했다. 이는 중국의 세력 균형에 대한 인식에 기본적인 변화를 의미했다. 종전의 인식과 평가에서 상당히 이탈했음을 보였다.³⁷ 중국은 향상된 국가 위상과 역량으로 이제 이런 미국의 정치적 행위 수단을 견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자신감을 보인 대목이라 할 수 있다.³⁸

그리고 2017년 19차 당대회에서 중국 공산당은 이를 대미관계의 기본 전략으로 공식화했다. 이렇게 미국과의 관계를 관리·통제할 수 있다는 중국의 자신감은 미국과의 세력균형이 어느 정도 이뤄졌다는 판단에 근거한다. 이 같은 중국의 대외인식은 지난 19차 당대회에서 공개됐다.³⁹

시진핑은 미중 양국의 갈등 현안에 대한 양국의 입장차이가 극력하게 드러나면서 이의 즉각적인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를 그러나 대신 관리 및 통제 방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하였다. 그가 소개한 ‘관계’ 개념은 아무리 민감하고 입장차이가 크더라도 대화와 협력으로, 서로 윈-윈 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부단한 외교적 노력을 견지하는 것이다. 시진핑은 이의 당위적 목적을 미중의 갈등 관계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즉 국익 손실의 최소화하는 것도 국익이라는 전략적 계산에서 찾은 것이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미중 전략경쟁 관계의 프레임을 중국은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충돌하지 않고 대립하지 않는 것(不衝突不對抗)은 전제다; 둘째, 상이한 사회제도를 서로 인정하고 구동존이(求同存異)하는 입장에서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관건이다; 셋째, 각자의 핵심이익을 존중하는 것이 정치적인 기초다; 넷째, 상호이익과 호혜적인 협력이 양국관계의 발전 원천이; 다섯째, 양국민의 우의가 관계발전의 뿌리다; 마지막으로 세계 평화와 발전을 수호하는 것이 양국의 책임이다.⁴⁰

³⁶ 刘飞涛, “关于中美战略分歧管控的思考,” 『现代国际关系』, 第6期 (2014), pp. 52~57, 66.

³⁷ 习近平, 『决胜全面建成小康社会, 夺取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伟大胜利』 (北京: 人民出版社, 2017年).

³⁸ 贾秀东, “中国特色大国外交进入新时代,” 『中国军网』, 2017年11月4日, <http://www.81.cn/jfjbmap/content/2017-11/04/content_190995.htm> (검색일: 2023.12.2.).

³⁹ 习近平, 『决胜全面建成小康社会, 夺取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伟大胜利』.

V. 우리의 전략적 합의와 대응 방향

미국의 대중국 견제정책은 중국의 대외적인 행위가 교정될 때까지 지속될 것이다. 중국은 중국공산당이 건재하고, 중국의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의 꿈을 이룰 때까지 미국과 경쟁하며 자기만의 전략을 구사할 것이다. 이런점을 고려하여 우리의 외교 입장과 전략도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중국은 한미일 3국이 군사 관계를 강화하는 것을 반대한다. 그러나 캠프데이비드 정신을 통해 이는 불가역적인 결과가 되었다. 우리가 중국의 위협에 독자적으로 내적 균형을 이루지 못할 경우에는 편승 전략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중국의 영토주권과 북한의 핵무기 등과 같은 안보 위협에 노출된 것이 사실이다. 이런 현실에서 세력균형을 통해 한반도 및 주변지역에서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선택이겠다.

중국은 우리의 이런 현실적 선택을 반대한 지 오래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 전후에 이 같은 입장을 피력한 지도 오래다. 2022년 3월 9일과 11일 중국은 공산당 기관지 『환구시보』의 사설을 통해 이미 경고성 메시지를 거듭 전한 바 있다. 3월 9일자 사설 “미국이 우리를 압박하고 회유하는 작금의 행태를 동북아의 지정학적 대립 구조에서 우리를 전진기지로 이용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미국의 행태가 한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음을 지적한 것이다. 사설은 우리가 “한중관계와 한미관계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교량(교두보)이 되어야 하지, 누구 한쪽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고 엄중한 경고를 보냈다. 3월 11일 사설은 한중관계를 한미관계의 부속품으로 치부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한미일 3국 군사 관계의 강화로 우리의 외교적 자율성과 중국으로부터의 불이익을 우려하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우리의 외교적 자율성은 우리의 주권, 영토 완정의 보장이 전제되어야 한다. 우리는 미일동맹의 한계와 제약을 이용해 우리의 외교적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 가령, 일본의 ‘평화헌법’은 유사시 미일동맹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

한미동맹이 결국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⁴⁰ 乐玉成, “人民日报人民要论: 牢牢把握中美关系发展的正确方向,” 『人民日报』, 2020年 9月 7日.

위치에 있다는 의미다. 주도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해군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한미일 3국 중에서 우리의 해군력이 제일 부족하다. 앞으로 한미일 3국의 군사 관계가 해군을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우리의 해군력 증강은 시급한 과제다. 이런 현실은 한미일 3국의 연합군사훈련에서도 입증된다. 해상훈련을 중심으로 전개되기 때문이다. 아직은 육상훈련은 정치적인 이유로 어불성설의 상황이기도 하다.

우리의 한미일 군사관계 강화에 적극적인 참여로 야기될 수 있는 중국의 제재와 같은 불이익 가능성은 2016년 사드 사태와 비교하면 현저하게 적다. 군사 영역에서만 한미일 공조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경제안보 분야에서 3국의 공조 체제가 확립되는 만큼 중국이 제재와 같은 압박 수단을 동원할 경우 역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미국 주도의 대중국 압박 전략은 최근 그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난에서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 4차산업 시기에 반도체의 원활하지 못한 수급으로 중국은 상당한 고충을 겪고 있다. 더욱이 메모리 반도체의 생산자이자 공급자인 우리에게 제재를 취하는 것은 중국 경제에 더 큰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레버리지’를 더욱 강화하는 외교적 노력을 전개해야 하겠다. 해군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한미일 3국의 군사협력을 주도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야 할 것이다. 메모리 반도체 등 4차산업의 핵심 부품의 생산력을 주도함으로써 경제안보적인 측면에서도 우리의 레버리지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점을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외교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미중 전략경쟁 시대에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외적 균형 전략이겠다.

■ 제출: 11월 9일 ■ 심사: 11월 21일 ■ 채택: 12월 11일

참고문헌

1. 단행본

- Gringrich, Newt. *Trump vs. China*. New York: Center Street. 2019.
- Paul, T.V.. "The Enduring Axioms of Balance of Power Theory and Their Contemporary Relevance." Edited by T.V. Paul, James J. Writz, and Michel Fortman. *Balance of Power: Theory and Practice in the 21st Century*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4.
- Walt, Stephen M.. *The Origins of Alliances*.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1987.
- The White House. "United States Strategic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May 20, 2020.
- 习近平. 『决胜全面建成小康社会, 夺取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伟大胜利』. 北京: 人民出版社. 2017.
- 『當代中國的核工業』. 北京: 中國科學技術出版社. 1987.
- 『建國以來毛澤東軍事稿』. 中卷. 北京: 軍事科學出版社. 2010.
- 『毛澤東軍事文集』. 第6卷. 北京: 軍事科學出版社. 1991.
- 『毛澤東選集』. 第4卷. 北京: 人民出版社. 1991.
- 『毛澤東選集』. 第5卷. 北京: 人民出版社. 1991.

2. 논문

- Biden, Joe. "Why America Must Lead Again." *Foreign Affairs*. vol. 99, no. 2, March/April 2020.
- Schweller, Randall L. "Bandwagoning for Profit: Bringing the Revisionist State Back In." *International Security*. vol. 19, no.1, 1994.
- 白永秀, 王頌吉. "丝绸之路的纵深背景与地缘战略." 『改革』. 第3期, 2014年.
- 崔必. "美日對中國研制核武器的認識與對策(1959~1969)." 『世界歷史』. 第2期, 2013.
- 齊麗姚. "毛澤東的核武器觀." 『丹東師專學報』. 第24卷, 第2期, 2002.
- 刘飞涛. "关于中美战略分歧管控的思考." 『现代国际关系』. 第6期, 2014.
- 刘海泉. "'一带一路'战略的安全挑战与中国的选择." 『太平洋学报』. 第23卷, 第2期, 2015年.
- 王光金. "毛澤東與新中國核武器的發展." 『党史博采』. 第12期, 2017.
- 王鴻章. "中國核威脅思想的歷史演進." 『軍事歷史』. 第9期, 2012.
- 張振江:王深. "美國和中國核爆炸." 『當代中國史研究』. 3期, 1999.
- 赵青海. "'四国同盟':构想与现实." 『国际问题研究』. 6期, 2007.

3. 기타 자료

- 최강, 신범철.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 2017』 시사점.” 『오피니언뉴스』. 2017.1 2.29. <<http://www.opinio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837>>.
- “美 안보 최우선은 테러와의 전쟁 아닌 中·러시아와 경쟁.” 『조선일보』. 2018.1.22.
- “外勢欺負, 頭破血流(외세기부 두파혈류) ‘외세가 중국 괴롭히면 머리 깨지고 피 흘릴 것’.” 『중앙일보』. 2021.7.21.
- Blinken, Anthony J.. “Reaffirming and Reimagining America’s Alliances.” NATO Headquarters. March 24, 2021.
- Blinken, Antony J., and Lloyd J. Austin III. “America’s partnerships are ‘force multipliers’ in the world.” *The Washington Post*. March 15, 2021.
- GPA PUBLICATIONS. <<http://iipdigital.usembassy.gov>>.
- International Institute for Global Strategic Analysis. September 14, 2023.
- “Obama’s Statement to the U.S.-China Strategic and Economic Dialogue.” The White House. July 8, 2014.
- “Quad Leaders’ Joint Statement: ‘The Spirit of the Quad’.” The White House Briefing Room. March 12, 2021.
- “Remarks by President Biden in Press Conference.” The White House Briefing Room. March 25, 2021.
- “(The Other) Red Storm Rising: INDO-PACOM China Military Projection.” 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 September 15, 2020.
- 贾秀东. “中国特色大国外交进入新时代.” 『中国军网』. 2017年11月4日. <<http://www.81.cn>>.
- 乐玉成. “人民日报人民要论：牢牢把握中美关系发展的正确方向.” 『人民日报』. 2020年9月7日.
- 习近平. “在庆祝中国共产党成立100周年大会上的讲话.” 『新华社』. 2021年7月1日.
- “关于坚持和发展中国特色社会主义的几个问题.” 『中国共产党新闻』. 2019年3月31日.
- “习近平会见美国前国务卿基辛格.” 『新华网』 2011年6月28日. <<http://news.xinhuanet.com>>.
- “习近平接见第五次全国边海防工作会议代表, 李克强张高丽参加.” 『新华社』. 2014年6月27日.
- “姚云竹: 人民军队在‘一带一路’中的战略和作用.” 『祖国网』. 2017년9월14日. <<http://www.zgzzs.com.cn>>.

Abstract

2023 Camp David Summit: The Consequence of US' external balancing and China's internal balancing in the Indo-Pacific

Choo, Jae woo

Korea-US-Japan's Camp David summit in August 2023 was the pinnacle of the trilateral cooperation, confirming their will and commitment. The article analyzes the factors that prompted the trilateral summit. It argues that the changing geo-strategic calculations of the U.S. and China due to the military rise by the latter and thereby ensuing challenges have facilitated the former to adapt a new deterrence strategy along the so-called "First-island chain." The chain embodies such strategic implications as the forefront defense line to the U.S. in the Indo-Pacific region, and the last on to China. From this strategic perspective, the U.S. and China have adjusted their respective defense strategy. The U.S. resorts to minilateralism while China relies on its own defense building measures. Stuck between the two, Korea is recommended to proactive cooperate with the U.S. and its allies should it found itself incapable of independently defending its territorial sovereignty and strategic interests.

Key Words: Camp David, Korea-US-Japan military cooperation, First-island chain, US-China competition, and minilateralism.